

지역경제일지

7. 2. ▶ 경남도, 중소기업육성자금 3,300억원 지원

7.25. ▶ 한국은행 경남본부,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자금 기한 연장

□ 경상남도(도지사 박완수)는 경영안정자금 1,250억원, 시설설비자금 1,750억원, 특별자금 300억원 등 총 3,300억원 규모의 3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(7.2일)

○ 경영안정자금 1,250억원은 일반 신규대출자금 500억원과 대환대출자금 750억원이며, 시설설비자금 1,750억원은 건축·임차자금 880억원과 매입자금 870억원으로 구성

○ 특별자금은 지난 1월 18일부터 조선, 항공우주, 원자력 등 주력산업과 비제조산업 지원 등 10종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, 중동사태 등 대내외 정세에 따른 수출기업 애로 해소와 도내 방위산업 업황을 위해, 이번 3분기에 수출기업 지원 특별자금 100억원과 방위산업 육성 특별자금 200억원을 추가 지원

□ 한국은행 경남본부(본부장 김정훈)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(24.7.18)에 따라 경남지방 소재 저신용 중소기업(개인사업자 포함) 대상 한시 특별지원자금(한도 6,314억원)의 기한을 연장하기로 하였음(7.25일)

○ 금융기관대출취급 기한을 종전 '2024년 7월말'에서 '2025년 7월말'로 1년 연장

○ 취약·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별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2024년 8월부터는 저신용 기업 등을 중심으로 운용